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⑪ 병듦과 죽음에 대하여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는 남문 밖에서 병든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본다.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다. 싯달타 태자의 고뇌는 깊어져 간다.

식탐·과식, 몸을 병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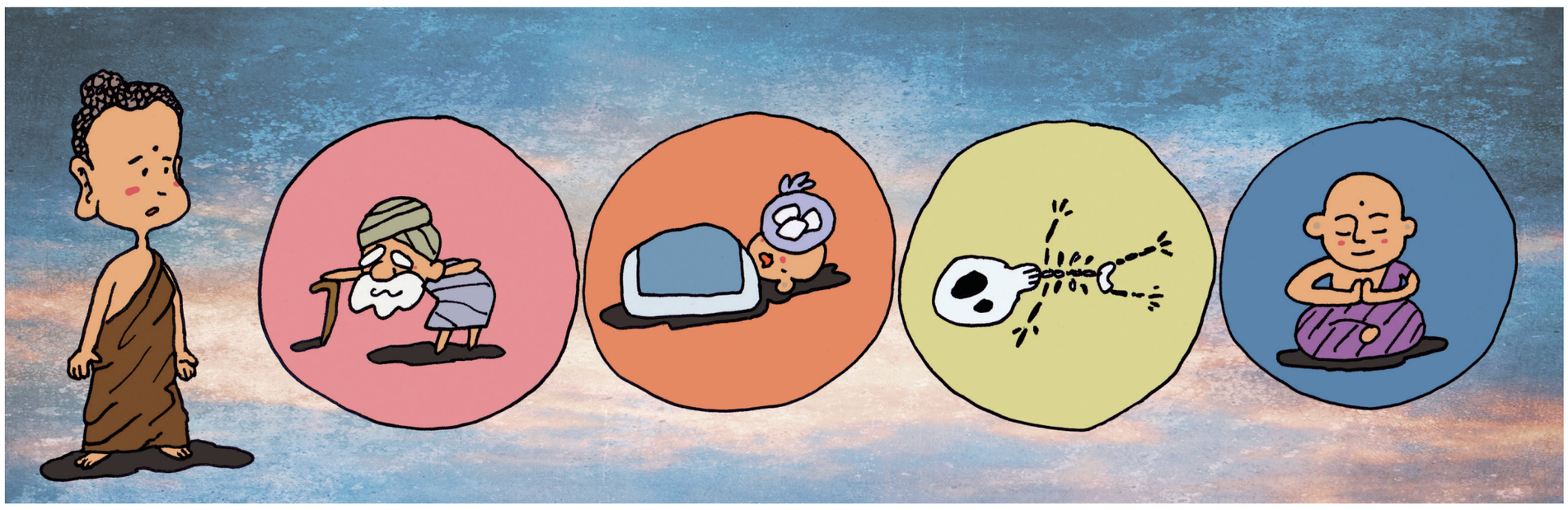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24권 중 10권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그 첫 권인 3권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이 사대문 밖 이야기 중 '병듦에 대하여'를 꼽을 것이다. 내가 40대 초반일 때 내 어머니는 당뇨 말기 합병증으로 복막투석과 녹내장으로 앉지도 눕지도 걷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계셨다. 나는 당시 한 자 한 자 사경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며 그야말로 전율이 일었다. 인간이 병드는 원인을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최초의 조선 불교 대장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남문 밖 병든 사람을 관하다

다음에 남문 밖에 나가시니 정거천이 병든 사람이 되어 길가에 누웠거늘 태자께서 물으셨다. 모시던 신하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는 것이니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太子又問 何謂爲病 答曰 夫謂病者 皆由嗜欲飮食無度 〈석가보〉 21c25)

태자가 말씀하셨다.

"몸이라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을 받는 수고로운 일이 있는 것이니 나도 저러할 것이로다."

하시고 궁으로 돌아가 들어앉아 시름겨워 하셨다.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나도 어느새 당뇨 환자 몇 년 차이다. 봐도 봐도 뜨끔한 이 한 마디. 우리 어머니가 전 생애를 들여 온몸으로 가르쳐주신 이 한 줄을 나도 어쩌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엄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남녀차별이 극심한 시대를 관통하며 21세기 시작 즈음까지 사셨다. 가난한 시집과 친정의 대소사와 우리집 대식구들을 위해 뼈가 부서지게 일하셨다. 그리곤 나이 마흔에 그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형 당뇨'라는 병에 걸렸다.

못 먹고 못 배우고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겨우 먹고 살만해진 나이에 걸린 이 병은 '먹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병이었다. 엄마는 너무나 억울해 하며 '먹고나 죽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엄마의 간난신고의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다. 결과는 참혹하였다. 갖은 합병증 끝에 60대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이럴 줄 알았다면 다시 돌아가 죽기 살기로 말렸을까. 아마 그러지 못하였을 것이다. '몸이라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철리이니 결국 나 또한 조심하였지만 그 길에 동참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과거현재인과경〉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병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병이라 함은 모두가 탐하며 욕심내고 음식에 절도가 없는 탓인데 사대육신이 고르지 못하다가 점점 변하여 병이 됩니다, 온 뼈마디가 고통스럽고 기력이 없어지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옵니다. 비록 몸과 손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남의 힘을 빌린 연후에야 앉고 일어납니다.(夫謂病者 皆由嗜欲飮食無度 四大不調 轉變成病 百節苦痛 氣力虛微 飮食寡少 眠臥不安 雖有身手 不能自運 要假他力 然後坐起)"

병의 원인은 음식을 너무 탐하고 욕심껏 과도하게 먹는 데 있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나의 몸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최대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민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손발을 움직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거의 독거하다가 고독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으셨다. "길을 깨끗하게 하라 하였더니 어찌 병든 사람을 또 보게 하였느냐."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살피는 일이야 가장 극진히 하였지만 어디서 온 지 모르는 사람이 문득 앞에 내달아 나타나니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왕이 하늘의 일인 줄 아시고 벌을 주지 않으셨다.

아버지 정반왕이 아들 싯달타를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갖은 방편으로 애면글면하는 모습이 눈물겹다. 하지만 이미 하늘의 뜻이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하는 모습 또한 애잔하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고 병드는 자연의 이치를 누구인들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철학자로 만드는 것이다.

남문 밖서 병자 만난 싯달타
병듦 원인, 식탐 · 과식 지목
서문 밖서 장례식 광경 목도
생로 병사 순환 싯달타 고민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자기의 깜냥만큼 근기만큼 가볍든 무겁든 그 무게의 등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석보상절〉 원문에는 신하들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강변하니 왕은 '죄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쓰여 있다. 똑같은 '죄'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 '죄와 벌'의 의미이다. 우리는 지금도 종종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그러다 '죄 받는다'라는 말을 쓴다. 사전에는 '죄에 대하여 벌을 받다'로 풀이되어 있다. '죄 주다'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벌을 주다'로 풀이한다. 우리의 심리 속에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난 뒤 받는 벌보다 나쁜 일을 하는 자체를 저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투영된 표현이 아닐까. 어쩌면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 자체가 벌인 것이다. 600년 전 글을 읽으며 우리 낱말의 어원과 쓰임새에 대해서 곰곰이 사유하게 된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나의 죄와 벌도 상기하게 된다.

서문 밖에서 죽음을 관하다

한 바라문의 아들 우다이라 하는 이가 총명하며 말을 잘 하였는데 정반왕이 불러다가 태자의 벗을 삼으셔서 항상 곁에 있게 하여 시름을 풀게 하셨다.

태자가 또 서문 밖에 나가시니 정거천이 죽은 사람이 되어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모두 울면서 좇아가거늘 태자께서 물으셨다. 우다이가 대답하였다.

"죽은 사람이니 인생에서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을 보니 넋은 없지 아니 하도다. 죽으락 살락하며 다섯 길에 다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니 나는 내 정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더욱 시름에 차 계셨다.

다섯 길은 지옥과 아귀, 축생, 천도, 인도이다. 천도는 하늘에 가서 태어나는 길이요 인도는 사람이 되어서 오는 길이다. 정신(精神)은 마음이니 넋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을 관찰하는 태자. 그의 말벗은 이제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가 골라준 우다이란 친구이다. 우다이(優陀夷, Udāyi)는 정반왕(淨飯王)의 참모 우타야나의 아들인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고 한다.

네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쳐 메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본 둘의 문답이 예사롭지 않다. '죽음은 인생에서 면할 사람이 없다'는 명제. 2500년 전의 죽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재 살아있음이 당연하지만 2500년 후 이 글이 남아 있다면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며 '이 사람 또한 죽은지 오래건만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마음으로 번역을 했네'라고 할 것이다. 누구도 면할 수 없는 죽음, 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의 보폭으로 걸어갈 뿐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사람이 윤회하는 것을 죽으락 살락 한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는 '할락 말락, 보일락 말락' 등으로 남아 있지만 '~락'은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인간으로 살았다가 죽고 짐승으로 살았다가 죽고 하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석보상절〉 3권이 초간본이 아니라 중간본이라서 '죽으락 살락'이라고 잘못 판각된 부분이 있다. '죽으락 살락'으로 고쳐 번역한다.

흔히 말하는 육도 윤회가 아니라 '오도(五道) 윤회'를 한다고 갈파한다. 오도란 '지옥과 아귀, 축생, 천도, 인도'이다 여기에 '아수라'를 더하면 육도가 된다. 첫째 지옥도(地獄道)는 가장 육체적 고통이 심한 세상이다. 둘째 아귀도(餓鬼道)는 지옥보다 육체적인 고통을 덜 받으나 반면에 굶주림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셋째 축생도(畜生道)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여 새 · 고기 · 벌레 · 뱀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세상이다. 넷째 인간이 사는 인도(人道)이고, 다섯째는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하늘 세계의 천도(天道)이다. 곧 인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여섯 세계 중의 한 곳에서 내세를 누리며, 다시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 다음 내세에 태어나는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싯달타의 통찰이 돋보인다. 죽은 사람에게 '넋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넋과 정신, 마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죽은 이의 무엇을 보고 넋이 있다고 한 것일까.

나의 경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엄마의 넋을 믿게 되었다. 엄마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듯이 정신도 마음도 나에게 전해지고 있고 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그저 그 마음뿐이다.

그러나 태자는 여기서 한 소식하고 있다. 범부인 나와 다른 점이다. 자신의 정신을 오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리라는 결심이 그것이다. 이제 그 결심을 실천할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사문유관의 마지막 북문 밖의 이야기에 그 해답이 나타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한신청 / 승려증갱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6월 ~ 7월** (※공고일 부터 1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